

‘1인 창무극’ 대가 공옥진 여사 별세

파란만장한 삶 마감... 영원한 서민 벗으로



공옥진 여사의 마지막 무대인 2010년 공연 모습.

‘병신춤’ 비판 받으며 찬밥 대우...창작 몰두한 진정한 예인

“옥진이, 나 공옥진이 죽지 않으면 다시 무대에 설립니다. 여러분들 꼭 다시 만납니다.”

2010년 고인의 마지막 춤판 ‘2010 명인명무전’을 기획했던 박동국씨는 국립극장 무대에 올랐던 공옥진 여사의 이 말에 눈시울을 붉혔다.

1998년, 2004년 두번이나 뇌출혈로 쓰러져 건강이 좋지 않았던 공 여사는 험사리 무대에 서겠다는 답을 주지 않았다.

15개월간 공 여사가 머물고 있는 영광을 찾아 다녔고, 결국 “몸이 안좋으니 소리나 춤은 보여 줄 수 없고 무대 인사만 하겠다”는 답을 듣고 팬 플릿을 만들었다. 그러다 공연 사흘 전 공 여사가 말했다. “서울까지 먼길 가는데 춤도 소리도 보여주고 잡네” 갑작스레 이뤄진 15분간의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한 그녀는 무척 기분이 좋고 행복해 보였다. 공연 후 그녀가 박씨에게 했던 첫 마디는 “배가 많이 고프네”였다.

이후 그녀는 다시 무대에 서지 못했지만 자신이 개척한 ‘1인 창무극’으로 ‘이 시대의 마지막 광대’ ‘서민들의 영원한 벗’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9일 타계한 공옥진 여사의 삶은 그의 작품이 보여주는 것 만큼이나 파란만장했다.

1931년 승주에서 태어난 공 여사는 유명한 국악집안 출신이다. 아버지가 판소리 명창 공대일, 할아버지 역시 명창으로 이름난 공창식이다. 어려서부터 소리와 장구·북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셈이다.

1937년 한국을 방문중이던 발레리나 최승희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간 그녀는 7년 동안 무용을 배우기 위해 최승희의 집에서 하녀로 일했지만 정작 춤은 배우지 못한채 광복과 함께 광주로

돌아왔다.

경찰관의 아내라는 이유로 사형장에 끌려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던 그녀는 한 때 비구니 생활을 하기도 했다.

‘심청가’ 등 정통 판소리에도 능했던 그녀는 1978년 전통춤에 해학적 동물춤을 결합한 ‘1인 창무극’을 무대에 올리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링컨센터에서 단독 공연을 진행했던 그녀의 창무극은 한때 ‘병신춤’으로 알려지면서 ‘장애인을 희화화해 돈벌이 목적’으로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농아였던 남동생과 꿈주 조카 딸이 장애로 생활에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장애인의 한을 풀고, 추한 모습의 장애인도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데서 연유했다.

1998년 뇌졸중으로 쓰러진후 2004년 다시 쓰러지고 교통사고까지 당해 무대에 서지 못했던 공 여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매달 43만원의 생활비로 근근히 생활하는 가운데 자신의 춤을 전승시키는 일에 애착을 가졌다.

공 여사의 수제자였던 한현선(여·48) 영광문화원 사무국장은 “산이나 바다에 가면 한 번도 자연을 허투루 본 적이 없었다. 학을 닦은 소나무를 보면 즉석에서 학과 소나무를 연상케 하는 춤 동작을 연구했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제자들에게 민요 가락을 적으러 시키기도 했다. 평소 모방을 싫어하고 오로지 창작에만 몰두한 분”이라고 기억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1978년 ‘1인 창무극’ 공연 모습.



9일 타계한 공옥진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영광 농협장례식장에서 딸 김은희씨가 분향 후 영정앞에 술잔을 올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올 여름휴가는 7월말~8월초 강원도·전남 선호

올 여름휴가는 7월 말에서 8월 초에 집중되며, 2박3일간 강원도로 다녀오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또 전남은 여름휴가 선호도가 꾸준히 상승해 올해는 2위를 기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한국관광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6월 7일부터 7일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름철 휴가 여행 계획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휴가 출발 계획 시점은 7월 30일~8월 5일이 36.4%로 가장 많았고, 7월 23일~29일(7.9%)과 8월 6일~12일(5.4%)도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에 집중됐다. 휴가지로는 강원도가 25.6%로 첫 손에 꼽혔다. 전남(17.3%)은 지난해 3위(11.2%)에서 한 계단 상승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경북(12.7%)이 뒤를 잇는 등 조사 대상자의 88.5%가 국내 관광지를 둘러보겠다고 답했다.

1인당 평균 지출 금액은 21.7만원으로 조사됐고 10~20만원(36.3%)이 가장 많았다. 이어 20~30만원(23.5%)과 30~50만원(17.0%)의 휴가비 지출을 계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광록기자 kroh@

소음 보상기준 광주 등 軍 비행장만 높아

기준 80웨클로... 광주·대구·수원은 85웨클

국방부가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의 개인주택에 대한 소음피해보상 기준을 기존 85웨클에서 80웨클로 완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항공기 소음피해 민원이 극심한 광주와 대구, 수원 등 기존 법안처럼 85웨클 이상으로 정해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9일 ‘군용비행장 등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09년에도 같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개인주택에 대한 소음 피해보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9일 ‘군용비행장 등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09년에도 같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개인주택에 대한 소음 피해보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9일 ‘군용비행장 등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09년에도 같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개인주택에 대한 소음 피해보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9일 ‘군용비행장 등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09년에도 같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개인주택에 대한 소음 피해보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49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주민들은 현행 항공법과 형평성에 맞춰 75웨클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공군 비행장을 아예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올해 대선을 앞두고 지방 공군비행장 이전 문제가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연합뉴스

軍비행장 소음피해대책 27일 정책토론회

민중통합당 광주시당이 ‘광주 군용비행장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두 번째 지역현안 정책토론회를 연다.

오는 27일 오후 4시 광주시 광산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광

주 군용비행장의 이전과 소음피해 대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철 의원이 발제자로 나선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 해외 해조류 대량 양식 시험개발 성공

전남도의 해외 해조류 대량 양식 시험개발 성과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9일 ‘인도네시아 시험양식장의 해조류가 60일 만에 4배나 성장하면서 대량 생산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지 시험양식장 일부 해조류에서 특이한 성장상에 현상도 함께 나타나 질병 대책방안 연구가 앞으로 사업확대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인도네시아 중부 술라웨시주 해역에서 열대 해조류의 일종인 코토니 대량 양식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 수산과학연구소 등이 술라웨시주 정부가 대어한 100ha 해역 중 빠르기모뚱 해역과 동갈라 해역 등 2곳에서 시험양식을 하고 있다.

코토니는 그동안 식용으로만 이용됐으나 바이오에탄올 성분 함량이 높아 바이오디젤연료 생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해역에서는 연 1회 정도 밖에 수확할 수 없어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열대에서는 연중 수차례 수확이 가능해 전남도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하나로 수년 전부터 추진 중이다.

전남도는 이 질병의 원인과 처방 등이 사업추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나서는 한편 연말께 최종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전남도 수산과학연구소 등이 술라웨시주 정부가 대어한 100ha 해역 중

농사 안짓는 고령자도 농협조합원 인정 추진

농사를 짓지 않는 농촌 주민도 농협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협 고위 관계자는 9일 일정을 충족하면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주는 ‘원로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려고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로조합원 제도는 연령이 65세 이상이면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은 고령자가 농사를 짓지 못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65세 이상 조합원 가운데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은 조합원은 94만 9145명으로 80% 수준이다. /연합뉴스

카드대금 “즉시결제”

(SC제일은행 카드매출 매입서비스)

모든가맹점 카드매출을 1시간 이내로 입금해 드립니다

현재 사용중인 카드체크기 포스 그대로 사용 가능

사용가맹점

주유소, 할인마트, 호텔, 모텔, 학원, 할인의료점, 유흥업소, 각종체임점, 식당, 중고차시장, 예식장, 장례식장 등 모든카드사용 가맹점

SC제일은행
카드매출 매입서비스 지정점 062-383-6364
대리점 모집 (전라권)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